

8

건물관리 근로자에서 발생한 난청 및 이명증

성별	남성	나이	73세	직종	건물관리직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□사업장에서 영선, 전기, 설비, 기계, 방화 관리, 냉동기/보일러 운전,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. 2009년부터 양측 귀가 잘 안 들리고 양측 귀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삼출성 중이염, 감각신경성 난청, 이명증을 진단받았다.

2 작업환경

○○○은 1986년부터 2011년까지 □사업장에서 영선, 전기, 설비, 기계, 방화 관리, 냉동기/보일러 운전,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. 3교대 근무로 주간, 야간, 휴무의 순으로 근무하였으며, 주로 소음에 노출되는 기계실의 소음수준은 TWA로 약 80dB 정도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이질환

4 유해인자

물리적 요인(소음)

5 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09년부터 양측 귀가 잘 안 들리고 양측 귀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삼출성 중이염, 감각신경성 난청, 이명증을 진단받았다.

근로자 ○○○는 1986년부터 2011년까지 □사업장에서 영선, 전기, 설비, 기계, 방화관리, 냉동기/보일러 운전,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. 2009년부터 양측귀가 잘 안 들리고 양측 귀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 있어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삼출성 중이염, 감각신경성 난청, 이명증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가 주로 소음에 노출되는 기계실의 소음수준은 TWA로 약 80dB 정도였다. 따라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었다.